

“500년 이팝나무 아래서 선조들 마음 되새긴다”

광양 사라실예술촌 국가유산 발굴
8년 연속 생생국가유산 사업 선정
24일 유당공원서 첫 프로그램 운영
도리깨 만들기·타작 체험 등 다채

전라남도 광양시의 자연유산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시민 체험형 유산 프로그램이 올해도 이어진다. 500년 수령의 이팝나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전통 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입체적 문화 콘텐츠가 본격화된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사라실예술촌이 주관하는 ‘생생국가유산사업’이 올해로 8년 연속 국가유산청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발굴·활용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존과 향

유의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국가유산청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광양시 사라실예술촌의 생생국가유산사업 ‘성(城) 돌 사이에 피어난 현호색’은 광양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마을학교 활동가, 지역 예술인, 지역 농산물과 생활 밀착형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민의 자부심과 공동체 정체성을 높이는 체험형 콘텐츠로 운영될 예정이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이팝나무 꽃 필 무렵’은 오는 24일 수령 500년의 이팝나무가 보존된 광양을 유당공원에서 개최된다. 유당공원 내 이팝나무는 광양시의 천연기념물로, 크기와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으로 꼽힌

다.

행사는 이팝나무와 광양읍수에 대한 문화해설을 시작으로, 마을교육활동가와 협업한 다채로운 체험 부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보릿고개를 넘기던 시기, 이팝나무 꽃의 만개를 풍년의 신호로 여겼던 선조들의 마음을 되새기며 도리깨 만들기, 타작 체험, 주먹밥 만들기 등 전통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폐현수막 장바구니 만들기,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등 친환경 활동도 함께 마련된다.

생생국가유산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이팝나무 꽃 필 무렵’ 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은 광양시청 홈페이지와 광양시사라실예술촌 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점은 광양시 사라실예술촌(061-761-2043)으로 문

의하면 된다.

조주현 광양시 사라실예술촌장은 “국가유산이 위치한 공간, 유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역사적 가치를 단순히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복원해 보는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화 교재 제작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활용 사례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덕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생생 국가유산 사업이 8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광양 지역의 국가유산이 지속적으로 조명받고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며 “지역 정체성 강화와 공동체 유대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썩섬 도선 2호’ 취향 탐승정원 14명…관광객 증가 대응

전라남도 고흥군은 지난 13일 나로도 선착장에서 지역 주민 100여명과 함께 썩섬 도선 2호 취향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봉래면 썩섬(애도)은 2017년 전라남도에서 ‘전남 제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2017~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선정된 곳으로,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되는 등 고흥 관광 1000만 시대를 이끄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기존 썩섬 도선 1호(정원 14명)만으로는 매년 늘어나는 탐방객을 수용하기 어려워 많은 관광객이 대기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군은 썩섬 도선 1호에 이어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썩섬 도선 2호를 추가로 건조해 취향했다.

이번에 취향한 썩섬 도선 2호는 도서종 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투입, 지난해 6월 건조에 들어갔으며 9개월여 만에 취향했다. 총 톤수 12톤급, 디젤기관 320마력을 갖춘 FRP 선박으로 바다 위 비밀정원이라는 썩섬의 이미지에 걸맞은 디자인이 적용됐다. 정원은 14명이다.

썩섬 도선 1호와 2호는 봉래면 나로도항과 썩섬 구간을 왕복 운항하며, 하루 10회 정기 운항을 하고 성수기에는 수시 운항으로 관광객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제3회 보성 티 마스터컵 성료 ‘보성 말차 아인슈페너’ 대상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제3회 보성 티 마스터컵’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4일 전라남도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보성다향대축제와 함께 개최된 티 마스터컵 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티 마스터들이 보성 차와 창의적 부재료라는 공식 아래 새로운 특색(시그니처) 음료를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올해 대회에서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참가한 우수정씨가 개발한 ‘보성 말차 아인슈페너’가 대상을 차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드러운 크림과 진한 보성 말차가 어우러진 해당 음료는 비주얼, 맛과 향, 시장성과 창의성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점수를 얻으며 최고점을 기록했다.

대회는 예선(광주·서울·부산), 준결선(서울), 보성다향대축제 주무대에서 열린 결선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가렸으며 전국에서 총 112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는 맛과 향은 물론 텍스처, 지속가능성, 창의성 등 1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됐다. 심사위원단에는 음료 개발 분야의 전문가와 대형 프랜차이즈 R&D 책임자, 식품기업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울산 노벨문학특화거리’ 공모 선정 장흥군, 2027년까지 20억원 투입

장흥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5년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울산 노벨문학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흥군 안양면의 대표적인 문화 자산인 울산마을과 여다지해안 일대를 지역의 문학 유산과 자연환경, 공동체 정신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울산마을은 장흥을 대표하는 문인이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가 집필 활동을 하는 곳으로 문학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인근의 여다지해안은 서정적인 해안 풍경이 어우러져 있으며 ‘문학산책길’이 조성된 이후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승원 작가의 작업실 ‘해산도굴’을 기점으로 울산마을과 여다지해안 문학산책길을 중심으로 특화거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고부가가치 어패류 종자 방류 여수시, 돌돔·볼락·문치가자미 등

전라남도 여수시는 고수온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어패류를 해역에 방류한다고 14일 밝혔다.

방류품종은 돌돔·볼락·문치가자미 등 어류 3종 36만마리, 전복 48만마리, 해삼 52만마리 등 7개 품종으로 지역 특성과 어업인의 희망 품종을 고려해 선정했다.

방류해역은 인공어초 등 서식 기반이 잘 조성돼 있고 수산자원의 산란·생장에 적합한 돌산, 화정면, 남면 일대로, 어촌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됐다.

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매년 어패류 종자 방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오는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마을앞바다 자원조성사업’을 통해 어업인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복 종자를 마을어업권 내에 살포, 어촌계에서 자원을 관리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상반기 중 12곳에 전복 종자 약 36만마리를 살포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무지개봉사단이 지난 11일 화양면 창무마을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방문해 주택 외벽과 담장, 옥상 등 주택 전반의 도색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무지개봉사단, 주거취약계층에 도색 봉사

전라남도 여수시 무지개봉사단은 최근 화양면 창무마을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방문해 주택 외벽과 담장, 옥상 등 주택 전반의 도색 봉사를 추진했다고 14일 밝

혔다.

대상 가구는 노부부만 거주하는 세대로, 아내는 거동이 불가해 온종일 침대 생활을 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도움으

여수=이경기 기자

구례군, 제1기 로컬크리에이터 성과 평가회 개최

1위 ‘수비엔다’…지역 가치 담아내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구례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성과 평가회를 개최하고 우수 성과팀 5팀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육성사업은 구례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재해석하고 새로운 지역 브랜드 상품을 만드는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선정된 9개 팀이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성과품을 개발했다.

이날 열린 성과 평가회에서는 9개 팀이 만든 최종 성과품을 선보였으며, 전문가 서면평가(30%)와 대중선호도 대면평가(7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최우수팀(1위)으로 선정된 ‘수비엔다’는 구례의 자연과 사계절을 담아



지난 12일 구례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구례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성과 평가회가 개최됐다.

구례군 제공

‘GURYE’라는 글자로 디자인한 마그넷과 티셔츠를 선보여 지역성과 상품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또 △놀다가게(구례 자연과 캐릭터 담은 컵과 손수건) △굿모닝헤일로(구례 패턴을 활용한 굿즈) △죽호바람(구례의 색깔을 활용한 오색바람 부채) △치유농장 풍차와 튜올립(커피박을 재활용한 새

싹인삼 화분과 텀블러)이 각각 우수 성과품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5개 팀에는 순위에 따라 6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의 사업화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해당 지원금은 제품 상품화와 마케팅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례=김상현 기자